

‘제조업 선방’ 산업생산 두 달째 ↑ …소비·투자는 마이너스 전환

전산업생산 전월比 0.9% ↑ …반도체 13.3% ↑ 의약품 11.8% ↑
소비·투자 마이너스 전환…소매판매 0.3% ↓ 설비투자 0.9% ↓

3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등 제조업의 선전으로 전월 대비 0.9% 증가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는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불안한 내수 경기를 반영했다.

또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는 수출과 제조업 생산마저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 1.6% 감소했다가 2월(1.0%)과 3월(0.9%)에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제조업이 전월 대비 3.2% 증가하며 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도체(13.3%), 의약품(11.8%), 전자부품(7.8%) 등의 생산이 호조를 보였다. 기계장비(-3.1%), 석유정제(-9.3%), 금속가공(-2.9%) 생산은 감소했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된 자동차 생산은 1.8%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0.9% 늘었다. 내수 출하는 0.4% 감소했지만 반도체(21.7%)를 중심으로 수출 출하가 2.6%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3.9%로 전월 대비 3.5%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9%로 전월 대비 1.7%p 상승했다.

하지만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서비스업 생산은 0.3% 감소하며 불안한 내수의 흐름을 보여줬다. 그나마 정부의 재정 투입 증가로 공공행정 부문은 4.5% 증가했다.

◆내구재 판매 급감에 소비 마이너스 전환…설비·건설투자도 뒷걸음

하지만 내수 경제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는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1월 0.6% 감소했다가 2월 1.9% 증가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8%)와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증가했지만 내구재(-8.6%)에서 판매가 크게 감소했다. 승용차, 통신기기, 컴퓨터, 가구,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내구재 품목에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백화점(-4.8%), 면세점(-4.7%), 승용차·연료소매점(-3.4%), 전문소매점(-1.9%), 무점포소매(-0.1%)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대형마트(2.3%), 슈퍼마켓·잡화점(2.7%), 편의점(1.3%) 등에서는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모두 뒷걸음질을 쳤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1월(-17.2%)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월(21.3%)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3.4%)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농업·건설·금속기계 등 기계류(-2.6%) 투자가 줄었다.

다만 선행지표 성격인 국내기계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6.0%)과 건축(-1.5%)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선행지표 성격인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p 높아졌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한달 전보다 0.2p 올랐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 “소매판매와 설비 투자 등 지출 쪽은 다소 주춤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2월 상승에 대한 조정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의약품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이 호조를 보였다. 다만 최근 관세 관련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고려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美 관세 영향 아직은 크지 않아…통상 리스크 총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국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7월 8일까지 연기됐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3월, 자동차 관세는 4월부터 발효 중이다.

통계청은 미국의 관세가 아직 국내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자동차 생산은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며

“자동차는 관세보다는 전기차 보조금과 신차 효과 등 내수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 내수가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철강의 경우 수출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물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수에서 관세의 영향이 있었다고 파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품목별 관세 조치를 앞두고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밀어내기’ 효과가 일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3월 지표는 철강 빼고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라 밀어내기가 전반적으로 있었을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 효과가 얼마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와중에 반도체가 제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밀어내기라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고부가 인공지능(AI) 등 수요가 견조하게 깔려 있는게 바탕이 된 거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일 큰 불확실성이 미 관세인 만큼 통상 리스크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세 등 불확실성 매우 큰 상황…건설업, 근본적 활성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3월 서비스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 부진과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회복 지연, 2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건설기성의 경우 과거 과잉투자에 따

른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량 붕괴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생산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일시적 요인 해소▲추가경정 예산 등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미국의 관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 협상 및 국내 피해기업 지원 등 총력 대응하고 ‘필수 주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내수 부진 요인별 맞춤형 대응 노력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중 과장은 “2020~2021년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많이 늘어났다. 그때 늘어났던 PF들이 2022년부터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많이 악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서 지난해 2분기에 수주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투자)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2월 말에는 교량 붕괴 사고가 있어서 많은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그 영향까지 겹쳐서 3월에도 건설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쪽은 부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근본적인 방안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1.3%, 서비스업 생산은 0.3%씩 늘었다.

소매판매는 0.7%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1.9%, 건설기성은 6.1% 감소하는 등 투자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용일 기자



뜨거운 인기엔 빈 크보빵 매대

SPC삼립의 프로야구 공식 라이선스 제품 ‘크보빵(KBO 빵)’이 누적 판매량 1000만 봉을 돌파했다. 지난 3월 20일 출시 이후 41일 만으로, 출시 제품 중 역대 최단 기간 달성 기록이다.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편의점에 크보빵 매대가 대부분 비어있다.

전남 농수산물식품, 글로벌 시장서 인기…1분기 수출 15.4% ↑

미국 관세장벽 속에서도 전남 농수산물식품이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1억7916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과 신선농산물, 음료 수출 호조가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물 수출이 1억2051만 달러로, 전체 67%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21.3% 늘었다. 특히 김은 9540만 달러로, 단일품목으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김은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며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984만 달러로 55% 증가했다. 쌀, 배, 파프리카, 키위 등 대표적이다. 배는 대만, 키위는 일본수출 확대에 힘입어 각각 51.4%, 1992% 증가했다. 음료는 963만 달러다. 배·유자음료 등 과일주스를 중심으로 64.7% 늘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이다.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전남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도 김, 음료, 유자차를 중심으로 39.6%나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

미 관세 장벽 불구, 김·음료·유자차 등 39.6% 늘어



은 김과 분유, 오리엔트, 일본은 김, 전복, 미역 등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6%, 1.1% 늘었다.

시군별로는 목포가 3124만 달러로 43.5% 증가하며 농수산물식품 수출 1위를 기록했다. 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고흥 2960만 달러(12.5% 증가),

신안 2655만 달러(22.6% 증가) 순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김과 음료를 중심으로 한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에 주력해 수출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해남군-에이마트, ‘농식품 캐나다 수출 확대’ 업무 협약

다음달 켈거리 현지서 관촉행사 진행



해남군은 캐나다 켈거리 소재의 에이마트(A-Mart)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

약을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군수와 에이마트 정찬식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해남군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제품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 구축하는데 협력기로 했다.

에이마트(대표 최병화)는 캐나다 켈거리에서 3개 매장을 보유한 아시아 식품판매 전문마트다. 해남군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 우수 농수산물물을 캐나다로 수출할 조석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해남군은 6월에 켈거리 현지에서 관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촉행사에서는 제품 판매 뿐 아니라 해남군의 문화와 역사 등을 알리기 위해 영상제작 및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